

칼빈의 목회원리*

신 복 윤
(교수·조직신학)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1532년에 화렐(Farel)과 함께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화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이 위험한 사상가에게 심한 박해를 가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제네바 시민들은 화렐이 주장하는 이 새 종교야말로 그들의 정치적 독립(政治的 獨立)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침내 1536년 5월 21일 제네바 전시민이 모여 투표를 하고 복음에 따라 살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네바 시민들에 있어서는 그것은 정치적 결단이었지 신앙의 결단은 아니었다. 내면 세계에는 큰 변혁이 없었던 것이다. 제네바 시민들은 종교개혁을 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였다. 즉 교회당 안에 있던 모든 조각이나 상(像)들을 제거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옛것들이 다 파괴되었으나, 사람의 마음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러한 때 칼빈이 잠시 제네바에 오게 된 것이다. 1536년 7월이었다. 칼빈의 나이 27세였고, 화렐은 47세였다. 기독교 강요의 저자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것과 내일 아침 이 거리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화렐은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즉시 칼빈의 숙소를 찾아가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도와 달라고 간곡히 간청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화렐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스트라스부르

* 이 논문은 1986년 가을 전주대학교에서 주최한 제1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행한 강연으로 많은 부분을 보충, 수정하고 여기에 각주를 첨부하였다.

그에서 조용히 연구생활을 계속하려던 칼빈의 결심은 화렐의 그 간곡한 설득에 동요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화가 난 화렐은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당신의 조용한 연구생활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당신의 연구생활은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도시의 종교개혁 사업에 몸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소.” 칼빈은 마침내 굴복하고야 말았다. 그는 화렐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해 8월부터였다.

27(7/2)

칼빈은 일생동안 28년간 목회생활에 몸을 바쳤다. 1536년 8월에서 1538년 4월까지 처음 제네바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했고, 제네바를 쫓겨나 당시 독일령이었던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3년간(1538년 9월—1541년 9월) 프랑스 피난민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일을 보았다. 1541년 9월 다시 제네바의 초청을 받아 1564년 5월 27일 죽을 때까지 23년간 거기서 목회활동을 하였다. 우리는 칼빈을 종교개혁가요, 신학자요, 성경주석가요, 교회조직자요, 설교자요, 목회자라고 부른다.

!(?)

칼빈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곧 하나님 중심사상이다. 이 사상이 칼빈의 모든 사상과 실제 목회의 바탕이 되었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경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생애를 이어가고 있었던 분이였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칼빈은 언제나 자기는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자로 자처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서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회심의 날자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시편 주석의 서문에 나타난 사실을 보고 그의 회심을 추측할 뿐이다. 죽을 때에도 자신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하였다. 이만큼 칼빈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칼빈의 목회 원리를 넷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첫째로, 칼빈의 강조점은 말씀의 순수한 전파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聖禮)가 바로 시행되는 곳이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¹⁾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여러번 강조하였다.²⁾

다소 도덕적인 결함이나 병폐(病弊)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사역이 존재하기만 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 주요교리나 신조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합법적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허물지 않는 한, 사소한 잘못들은 마땅히 용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핵심 속에 거짓이 침투하거나, 교리의 뿌리가 붕괴된다면 목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교회는 즉시 파멸하게 될 것이다. 만일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면, 그 교훈이 제거되었을 때, 그 건물은 어떻게 존립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를 지탱하는 요강이 무너지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라고 한다면, 기만과 허위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³⁾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사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빈을 “성경의 사람”, 혹은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의 사명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시키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하나님 자신을 보

- 1) *Inst.*, IV, 1, 9. 이것은 기독교강요 제4권 1장 9절을 의미한다. 역사 엠 2:20 참조.
- 2) *Inst.*, IV, 1, 9-12.
- 3) *Inst.*, IV, 2, 1.

여주는 보다 나은 조력자(助力者)이다. 현상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명백하게 계시하였으나, 한편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올 바로 인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조력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경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말씀의 빛을 더 하여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이다. 이 성경은 유대민족들로 하여금 미로(迷路)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으며,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지식을 유지하게 한다. 칼빈은 이 성경(조력자)이 인간의 미련하고 둔감함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안경의 예를 든다. “노인이나 시력이 약한 자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책을 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무슨 글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는 느낄런지 모르나 거의 두 글자도 읽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도움으로 분명하게 읽어 내려 갈 수가 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혼란된 지식들을 우리 마음에 하나로 집중시키고 흑암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교훈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거룩한 입을 열으시며 마땅히 어떤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선언하십과 함께 바로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선언하신다.”⁴⁾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된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기록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거짓 신과 참 신이 어떻게 다르며, 참 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게 되는 참 신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구속주(救贖主)시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신만이 경외함을 받아야 하며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⁵⁾

- 4) *Inst.*, I, 6, 1. 참조.
- 5) *Ibid.*
- 6) *Ibid.*

이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력을 초월한다. 그 배열과 위엄, 질리와 단순성, 그리고 그 효과에 있어서 인간이 만든 책은 아무리 인위적으로 잘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성경과 꼭 같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테모스페네스와 키케로를 읽어 보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 보라. 아마 그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독자들을 매혹하며 기쁘게 하며 감동을 주며 황홀하게 만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글을 다 읽고나서 성경을 정독하게 되면 좀 썩 썩 싫은 수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그 아름다움이 거의 전적으로 사라질 정도로 독자를 강하게 감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독자의 마음에 깊이 침투하여 강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⁷⁾ 칼빈은 이렇게 성경이 인간의 최고의 학식이나 상식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져 방황하다가 마침내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탈하려는 인간의 강한 경향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를 느끼시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각종 오류에 빠지는 바가 얼마나 크며, 끊임없이 새롭고 거짓된 종교를 날조하려는 열망이 얼마나 맹렬한가를 생각한다면, 그 하늘 나라의 교리가 망자 되지 아니하고,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며, 인간의 추측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⁸⁾ 이 성경은 일반제시가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인간의 정신은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 지식에도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⁹⁾ 하나님의 사역들을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된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법칙인 성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

7) *Inst.*, I, 8, 1.8) *Inst.*, I, 6, 3.9) *Inst.*, I, 6, 4.

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질 때에만 모든 오류들을 그 마음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이 성경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은, 로마 교회의 주장처럼, 그것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인정된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 승인한 때문도 아니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고려될 때 만이 성경은 그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결정에 따라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이다. 칼빈은 로마 교회를 맹렬히 공격한다. “교회의 투표에 의해서 그들에게 인정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이 많은 무게를 가진다고 하는 가장 해로운 오류가 널리 유행하였으니, 이는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전횡적 의지(專橫的意志)에 좌우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¹⁰⁾

성경의 권위가 교회나 이성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다. 칼빈의 주장을 들어보자. “성령의 증거는 이성을 능가한다고 나는 대답한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기 말씀에 대해서 충실한 증인인 것처럼, 그 말씀도 또한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경이 우리 마음에 들어 오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저들이 충실히 증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¹¹⁾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그 권위를 스스로 증거한다고 믿는다. 성경은 증명이나 논의의 문제를 이성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아야 할 신뢰를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떠나서는 신학도 없으며, 진리가 없으며, 성경 말씀 앞에는 인간의 어떠한 사상도 경험도 이에

10) *Inst.*, I, 7, 1.11) *Inst.*, I, 7, 4.

대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칼빈 사상에 있어서 최대의 특징은 “성경적이다”라는 것이다.

둘째로, 칼빈이 강조한 것은 성례였다.

칼빈의 신학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례의 신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²⁾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실 때 직접 만나지 아니하시고, 건달이나 가시적 상징(可視的 象徴)을 수단으로 하여 만나신다. 그때서 칼빈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성례전적 교제(聖禮典的 交際)로 보았다. 그는 질서가 잡히고 잘 다스려지고 있는 교회라면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식이 자주 거행되고 모든 신자들이 이 예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³⁾

칼빈은 로마 교회의 7성례(堅信禮, 告解禮, 按手禮, 結婚禮, 終禮, 洗禮, 聖餐)를 비성경적인 것으로 보고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라고 주장하였다.¹⁴⁾ 이 둘만이 성경에서 입증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 준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성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말씀없이 성례의 요소들은 단순한 물이요, 떡과 포도주에 지나지 않는다. 칼빈은 처음부터 말씀과 성례를 평행적(平行的)으로 다루었다. 물론 이 둘을 동일한 평면에 둔 것은 아니었다. 성례는 말씀없이 존재할 수 없는 보충적인 것이지만, 말씀은 성례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완성적인 것이다.¹⁵⁾

칼빈은 성례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성례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비의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印)쳐 주시는 유형적 표호(有形的 表號)이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전을 증명하는 의식이다.”¹⁶⁾

우리는 이 정의에서, 성례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

12) T. H. L. Parker, *John Calvin*(Lion Publishing, 1975), p. 50.

13) *Inst.*, N, 17, 43, 43.

14) *Inst.*, N, 14, 18-20.

15) *Inst.*, N, 14, 3.

16) *Inst.*, N, 14, 1.

의 확증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성례는 그 약속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못하고, 다만 그것을 믿게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신앙은 보잘것 없이 미약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받쳐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유지되지 않는 한, 그것은 흔들거리고 동요하며 비틀거리다가 마침내는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공활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 실로 우리는 항상 땅위를 기어다니며, 육신에 집착하고,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상상도 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지상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까지 우리를 자신에게 인도하시며,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 은사의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¹⁷⁾

그러면 칼빈의 성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먼저 그는 세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의 세례관은 루터와 쾰링클리의 세례개념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그러나 칼빈이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선언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의 영적 내용이었다. 세례는 칼빈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하여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입회의 표”이다.¹⁹⁾

칼빈은 세례의 세가지 유익을 말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첫째로 세례는 사죄(赦罪)의 표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세례식에서 사용되는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에서 오는 정화(淨化) 이외에는 어떠한 정화도 약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피는 깨끗하게 하고 씻는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물을 수단으로 하여 표현되는 것이다.²⁰⁾ 이렇게 칼빈은 성례의 영적 국면을 강조하고, 성례의 기초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두었다.

17) *Inst.*, N, 14, 3.

18) Francois Wendel, *Calvi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Glasgow: William Collins Sons & Co., 1980), p. 319.

19) *Inst.*, N, 15, 1.

20) *Inst.*, N, 15, 1-4.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롬 6:3,4). 물론 이 말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단순한 모방이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에는 더 숭고한 사상이 들어 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과 합하게 하시려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생명을 주시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다.²¹⁾

셋째로,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므로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²²⁾ 우리의 믿음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칼빈은 갈 3:26, 27을 인용하여 이 사실을 입증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칼빈은 그리스도를 세례의 완성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세례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였다.²³⁾

다음으로 칼빈의 성찬관(聖餐觀)은 어떤 것인가? 칼빈은 1537년 스트라스부르고 시절에 쓴 성찬소론(聖餐小論)에서, 로마 교회의 화체설(化體說)을 정죄하고, 루터와 쾰링거도 로마 교회의 오류를 시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칼빈 자신은 엄정한 중도의 길을 찾으려고 애썼다. 영적 양식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지만, 성찬도 역시 복음의 약속을 보증하고 날인(捺印)하며, 감사의 마음을 깨우치고, 생활의 성결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울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성찬의 실체(實體)요 기초로써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를 통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²⁴⁾

21) *Inst.*, IV, 15, 5.
 22) *Inst.*, IV, 15, 6.
 23) *Inst.*, IV, 15, 6.
 24) OS I, 505-508. 이것은 칼빈 選集 제1권 505페이지에서 508페이지 까지를 의미한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4권 제17장에서 성찬론을 훌륭하게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살과 피에도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현실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²⁵⁾ 이것이 그의 성찬론의 요점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분명히 성찬에서 주어진다고 말함으로 그리스도의 임재(臨在)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성찬식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역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조하지만, 루터처럼 현실적인 살과 피가 성찬식의 요소와 함께 주어진다고 보지 않았다.²⁶⁾ 그것은 영적인 임재이다. 그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의 일치를 강조하고, 이것은 성찬식 그 자체의 역사 보다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성찬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영적 임재설(靈的 臨在說)이라고 부른다.

루터나 칼빈은 다같이 성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고 있었다. 루터에 있어서 그것은 그 요소들 속에, 그 요소들 밑에, 그리고 그 요소들과 함께 임재한다. 그러나 칼빈에 있어서는 성령에 의한 임재이다. 칼빈은 루터에게서 아직 로마 교회의 잔재가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칼빈과 루터의 성찬론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칼빈과 쾰링거의 견해도 다르다. 아마 이 차이는 칼빈과 루터의 차이보다 더 할런지 모른다. 칼빈은 성찬을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만 생각했던 쾰링거의 기념설(記念說)과 이것은 “내 몸이 니라”고 하신 주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장소적 임재(場所的 臨在)를 주장했던 루터의 공재설(共在說)을 모두 잘못된 것으로 반대하였다.

이미 위에서 말한바대로,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올바른 시행은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칼빈은 이처럼 성례, 특히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매주 갖기를 원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매달 한번씩 그 달 첫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시민들과 의회는 이것도 너무 잦다 하여 마침내는

25) *Inst.*, IV, 17, 3.
 26) *Inst.*, IV, 17, 10.

성찬식을 일년에 네번만 거행하였는데, 성찬절과 부활절과 성령강림절, 그리고 9월 첫째 주일에 행하였다. 그리고 세례는 교회에서 행하였으며 이때마다 칼빈은 세례의 뜻을 길게 설명하였다. 칼빈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교인들의 생활을 철저히 감시하여 무슨 범죄나 과오가 들어나거든 수찬을 정지시켰다. 성찬은 유형적(有形的)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성찬식에 참여 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하고 회개의 증거가 없는 자는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세째로, 칼빈이 강조한 것은 권징(勸懲)과 훈련(訓練)이었다.

권징은 말씀을 순수하게 유지하며 성례를 거룩하게 지키는데 매우 필요하다.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교회는 성화(聖化)의 생활을 해 나가도록 신자들을 지도하며 도와야 할 의무를 갖는다. 만일 교회의 설교가 헛되지 않고, 성례가 신자들의 신앙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모든 오류에서 피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아반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는 권징이 시행되어야 할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칼빈이 교회의 권징을 아주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標識) 가운데 하나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점에서는 그와 견해를 달리하였다. 루터가 교회의 두 표지 즉 복음전파와 성례의 시행을 주장한데 대해서 부처는 여기에 권징을 하나 더 가(加)했던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 권징은 물론 중요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의 표준이며, 성화의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그것은 교회의 조직에 속한 것이지, 교회의 정의(定義)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²⁷⁾ 교회는 비록 그것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항상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회원들이 현

27) Wendel, *op. cit.*, p. 301.

제 적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리의 혼란과 회원들의 건덕상(健德上)의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의 순결과 성도들의 성화의 생활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 교회에 혼란이 있고, 회원들에게 추한 행동이 있을 때, 이것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위해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권징은 특히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는 성찬에서 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성찬과 관련된 이와 같은 권징의 관념은 칼빈이 제네바 제1차 체류시절에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젤과 스트라스부르크의 지도자들도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²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그 특징을 보존하고자 하면, 권징은 필수 불가결의 것이 된다. 일찌기 1536년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구분하였다.²⁹⁾

첫째로,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려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히 반항하고 교회 자체를 파멸의 위기에 몰아넣는 이단(異端)과 분리주의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칼빈에 있어서 권징은 단순히 교회의 도덕적 행동을 증진시키거나 교회생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³⁰⁾ 교회가 참된 교회나 아니냐 하는 것은 교회의 도덕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교회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교회를 손상시키는 자들을 제재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방종한 회원들에 의해서 더러워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

28) *Ibid.*, p. 292.

29) *Inst.*, IV, 12, 5.

30) Wilhel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Philadelphia: The Westminster, 1956), p. 189.

끄러운 행동으로 그리스도교를 비방하며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들을 교회의 가족(家族)에서 추방해야 한다.

둘째로, 칼빈은 선량한 사람들이 악인들과 교제함으로써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권징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 유지된다고 하면, 다른 회원들도 역시 마귀에게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생각하고 있었던 권징의 둘째 목적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친상간(近親相姦) 하는 자를 형제들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5:6)고 경고하였다. 칼빈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신자들의 엄격한 종교적 배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윤리생활까지도 생각에 넣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은 칼빈이 제네바 교회회의에 제출한 지도방침을 보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한 것은 신자들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칼빈이 생각하고 있던 이 권징은 세속적 사법권(世俗的 司法權)과는 전혀 다른 것이요, 법적 성격을 띠지 않은 것이 아주 명백하다. 그것은 억압적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공중 질서를 보호하려고만 의도된 것도 아니었다. 칼빈의 세제 목적에서 제시한 대로 그것은 언제나 영혼의 치료에 있었다.³¹⁾

칼빈은 권징의 생제 목적을 파문 당한 자가 회개하여 마침내는 회복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³²⁾ 이와 같이 악을 행한 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벌을 받고, 교회의 체적을 맞음으로 그들의 과오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하면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얻게 하려 함이라”(고전 5:5)고 하였다. 즉 바울은 그를

31) Wendel, *op. cit.*, p. 300.

32)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Romans and the Thessalonians*, p. 346.

임시로 정죄하므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권징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육적인데 있었던 것이다.

칼빈은 위에서 본대로 권징은 영혼의 치료에 있고, 교육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네바 시민을 훈련시키는데 엄격하였으며 남달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칼빈은 훈련세칙(訓練細則)을 만들었다. 그는 제2차 제네바 생활을 시작했을 때, 1541년 1월 19일 제네바 교회법칙(Ordonances Ecclesiastique de Geneva)을 만들고, 1542년 1월 2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법규의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셋째로 교회 제직(敎會 諸職)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교회 제직의 종류, 자격,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직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되어 있으며, 목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거행하며, 장로와 함께 훈련을 시행한다. 목사의 자격은 먼저 거룩한 소명감이 있어야 하고,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임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사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의 할 일은 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집사는 빈민구제와 병자들을 방문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둘째로 성직회(聖職會, La Vénérable Compagnie)에 관한 법이다. 이회는 제네바에 있는 5인의 목사와 신학교수와 지방 목사로 조직되었다. 성직회는 목사들의 활동과 시민의 도덕적 훈련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이 성직회에서는 신학교 교육문제, 목사 후보생 시험문제, 예배 관리문제, 그리고 교리 논쟁과 같은 문제들을 결정하였으며, 매주 한번씩 소집되었다.

셋째로는 감독원(監督院, consistoire)에 관한 법이다. 이 감독원은 주로 장로로 구성되었다. 성직회가 종교적 방면을 관장한다고 하면 감독원은 도덕적 방면을 관장하여, 교회원 전반의 도덕 상태를 감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이 감독원은 제네바에서 도덕적 훈련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실제상의 행동, 언어, 사상에 이르기까지 전부 관리하고 있었다.

네째로 예배와 성례전에 관한 규정이다. 예배는 주일날에 적어도 두번 이상 드려야 한다.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편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회화(繪畵), 조각, 그리고 상(像) 등, 신명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도록 규정되었다. 예배 외에 청소년 교육과 건덕(健德)을 위한 시간을 정하여, 16세까지는 반드시 여기에 참석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성찬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려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여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다가 그후 경험을 통해서 일년에 네번 거행하였는데, 부활절, 성령강림주일, 9월 첫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이었다. 이렇게 제네바 교회에서는 일년에 네번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세례식은 반드시 교회에서 행하되, 이때 세례에 관한 설명을 길게 하도록 하였다.

칼빈은 결혼에 대하여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결혼에 관한 규정도 세워 놓았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녀의 믿음과 이해와 사랑의 결합이어야 하고, 육욕(肉慾)이나 그 밖의 동기로 결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결혼의 연령에 있어서 60세 이상의 남자의 경우, 자기보다 반 이하의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되며, 40세 이상의 여자는 35세 이하의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같은 결혼은 결혼의 본질과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며, 육욕, 물질욕, 명예욕이 그 동기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은 간통의 경우, 또는 한 쪽의 학대로 다른 쪽의 생명과 건강이 위태로울 때에 한해서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의복(衣服)에 대한 규정도 상당히 까다로와서, 사치스러운 의복은 물론, 귀금속이나 보석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손님을 초대할 때 보통의 경우는 10인, 결혼식의 경우 하루 계급의 사람은 10인, 중류 계급의 사람은 20인, 상류 계급은 30인으로 정해 놓았다.

이와 같은 제네바 법규를 어길 때 상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했다. 이 법규가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느꼈으며, 그래서 칼빈에게 격렬한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들의 반대 에 대하여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런 협박은 나에게서는 하등의 관심도 없다. 내가 제네바에 돌아온 것은 한가함과 이익을 얻기자

함이 아니다. 만일 다시 제네바를 떠난다 해도 나는 조금도 슬프지 않을 것이다. 나로 하여금 여기 돌아오게 한 것은 교회의 국민의 안녕과 행복에 있었다."

네째로, 칼빈이 주안점을 두고 힘쓴 것은 교육이었다.

칼빈의 목회는 말씀의 설교와 성례, 권정을 포함하는 훈련, 그리고 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겠다.

칼빈은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을 바로 교육하였다. 그는 예배에서 설교의 위치를 높였으며, 전통적인 예배형식을 버리고 대중화 하였다. 그리고 성례식에서 비부속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간소화 시켰다. 교회의 제1차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 그는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두었다. 칼빈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신학적 확신 때문에 제네바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할 만큼 자주 설교를 하였다.

칼빈은 설교 이외에도 성경 교육의 하나로 어린이와 청소년과 장년 등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요리문답 교육을 철저히 지켰다. 칼빈은 당시(첫 제네바시대) 제네바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일반시민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의 종교 교육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제네바 요리문답서를 만들었다. 이 문답서는 기독교 강요의 개요라고 할 수 있으며, 얼마 안가서 이 책은 모든 개혁파 교회의 교리 표준서가 되었다. 1년 55주에 할당하여 매 주일에 한 문답씩 가르치도록 되어있다. 칼빈은 이 책에서 목사와 신자가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교육에 대한 칼빈의 큰 공헌 가운데 하나였다.³³⁾ 16세 이하의 어린이는 예배 외에 교육 시간을 정하여 성경과 요리문답의 철저한 교육을 받게 하였고, 16세 이상이 되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예비교육으로 요리문답 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 교육에서 루터는 교육 책임자를 가장인 아버지로 본데 반하여 칼빈은 목사로 규정하였다. 그는 요리문답의 교

33) Peter De Jong, "Calvin's Contributions to Christian Education" 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April, 1967-Nov., pp. 162-201.

육이 공교회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 요리문답의 교육은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받아가며 이루어 졌다.

칼빈은 또한 어린이의 가정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조직과 예배에 관한 제의서”³⁴⁾에서, 모든 어린이에게 신앙의 단순한 개요를 가르칠 것과 1년 중 일정한 시기에 목사 앞에서 문답하고 시험을 받을 것, 그리고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부모들은 인내로서 자기 자녀들을 잘 지도하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 자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바로 지도 못했을 때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 있도록 목사로부터 훈련을 받았으며, 장로들은 각 가정에 가서 자녀교육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부모들을 감독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 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식구들, 즉 일꾼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에 이르도록 지도해야 했으며, 정규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려야 했다. 당시 제네바의 모든 부모들은 이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그러나 이 교육적 책임을 소홀히 한 부모들은 종교법원에 의해 견책을 당하기도 하였다.³⁵⁾

칼빈은 역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으로 영화롭게 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목적을 풀고, 학교 교육을 통하여 개혁신앙과 신학을 전수하려고 하였다. 칼빈의 교육활동 가운데 괄목할 만한 것은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대중 교육의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킨 것으로 교육사적으로 볼 때에도 큰 의의가 있다.

칼빈은 1541년 스트라스부트그 생활을 끝나치고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교육에 대한 자기의 꿈을 시의회에 보여 주었고 마침내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1559년 6월에 제네바 대학은 설립하게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 대학을 교회의 감독 아래 두고, 각 교사들은 엄격한

34)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 54. 이 문서는 1537년 1월 16일 제네바 시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종교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문서로써, 제네바 교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서이다.

35)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Chicago: Moody Press, 1964), pp. 168-169.

교회의 훈련을 받게 하였으며, 교회에 의해 임명받도록 하였다. 제네바 대학은 당시 전 서구의 젊은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유럽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운집하였다. 그래서 1570년경에는 1,500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다. 이 대학은 대학과 함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는 현대 교육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교양 과목과 그 밖의 학파들을 통한 다양한 학문연구와 신학연구를 연결시켰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맺는 말

우리는 위에서 칼빈의 목회에서 네 가지 특징적인 원리가 있음을 찾아 보았다. 칼빈은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성례를 바로 시행하는 데 힘썼으며, 따라서 이 틀이 헛되지 않고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기 위하여는 끊임없는 자아 반성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으로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는 이를 철저히 시행하였다. 칼빈의 목회는, 앞서서도 말한대로, 말씀의 설교와 성례, 권징을 포함하는 훈련, 그리고 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16세기 뿐만 아니라, 20세기에도 절실히 요청되는 목회자이다. 더우기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그의 목회 원리가 적용될 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